

경제

전남 건설업체 수주 크게 줄었다

■ 지역 건설협회 회원사 작년 실적 분석

전남 8조6천억 ... 광주는 소폭 증가

전남지역 건설업체의 지난해 수주 실적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광주는 소폭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에도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건축분야 수주액이 전년보다 광주 8.0%, 전남 22.1% 급감했다. 광주·전남지역 업체별 수주 실적은 중흥건설과 금호산업이 각각 1위를 기록했다.

◇일반건설업=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가 613개 회원을 대상으로 2009년 실적 신고를 마감한 결과, 수주한 공사 금액은 모두 8조6천815억원으로 전년 9조3천834억원보다 6천268억원(6.7%)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토목분야가 3조4천672억원으로 전년도 3조4344억원보다 13.9% 증가했지만, 건축분야가 4조6천904억원으로 전년 5조5천916억원보다

22.1% 감소하면서 실적 부진을 주도했다. 산업환경설비분야(2천392억원)와 조경(3천790억원)은 각각 전년도에 비해 51.4%와 99.2%의 급증했다. 회원 업체 평균 수주액은 141억6천만원으로 2008년 161억3천만원보다 12.2% 감소했다.

그러나 평균 금액 미미인 업체가 558개로 전체 회원사의 91.0%를 차지했다. 수주실적이 없는 회원사는 전년 46개사(8.0%)에서 지난해 27개사(4.4%)로 줄어 들었다.

업체별로는 금호산업(주)이 1조4천954억원으로 1위에 올랐고, 남양건설(주) 9천143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전년도에 4위였던 (주)호반건설은 7천852억원의 실적을 거둬 한계단 상승, 3위를 기록했다.

광주시회도 90개 회원사의 실적은

■2009 건설업체 수주 실적 (단위:억 원)

Table with 4 columns: 순위, 일반건설, 전문건설, 수주액. Lists top construction firms and their 2009 revenue.

〈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제공〉

분석한 결과, 총 수주액은 1조989억원으로 전년(1조802억원)보다 1.7%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토목이 2천938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0.7% 증가했고, 건축은 8% 감소한 6천967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무실적 업체 8천 300여만 미만을 수주한 업체가 전체 회원의 절반가량인 48%(44개사)에 이르는 등 지난해 광주지역 대부분 건설업체가 공사 물량이 없어 극심한 경

영난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수주액은 중흥건설(주)이 1천439억원으로 2008년 3위에서 1위로 뛰어올랐고, 이어 해림건설(주) 1천300억원, 남광건설(주) 919억원, 남해종합건설(주), 대진종합건설(주) 등의 순이었다. 전년도 1위였던 삼진건설은 6위로 내려앉았다.

◇전문건설업=지난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기성실적이 광주·전남 모두 증가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전문건설업체 736개 회원사의 기성액은 1조5천194억원으로 전년 1조4천777억원에 비해 3% 증가했다. 하지만 업체당 평균 수주액은 20억6천400만원으로 전년도 7천500만원 줄었다.

전남지역 2천629개 업체의 기성액은 3조3천672억원으로 2008년 2조7천665억원보다 22%(6천7억) 급증했고, 업체별 평균 기성액도 12억9천8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6.4% 증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하의~신의간 연도교’ 개설 공사싸고 또 수주경쟁 한양-남양건설 ‘질긴 인연’

영산강 살리기 사업 포함 세번째 격돌

전남도 역점 사업인 ‘신안 다이아몬드제도’ 개발의 중심축인 신안 ‘하의~신의간 연도교’ 개설 공사의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남도가 올해 처음으로 진행하는 500억원 규모의 터키(설계·시공 일괄인찰) 방식공사로 신안 다이아몬드제도를 연결하는 중심 구간인데, 영산강 살리기 사업 수주전에서 맞붙는 한양과 남양건설이 제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23일 총 사업비 595억 5천800만원 규모의 하의~신의간 연도교 개설공사에 대한 설계평가를 실시한다.

하의~신의간 연도교 개설은 해

상교량 0.55km와 교량 양측 접속도로 0.76km 등 총 연장 1.31km를 건설해 신안군 하의면 봉도리~신안군 신의면 하대서리를 연결하는 공사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신안 다이아몬드 중심축인 신의~하의간 해상 연결체계가 개선되면서 2시간40분이 걸렸던 목포~하의간 소요시간이 1시간40분으로 단축된다.

이에 한양과 남양건설, 남양건설을 대표사로 중흥건설사와 컨소시엄을 구성, 치열한 수주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특히 한양과 남양건설은 지난해 영산강 살리기 사업 6공구(서창) 구간에서 한차례 맞붙었던 경험이 있는데다, 이번 하의~신의 연도

교 개설공사에 이어 3월 10일께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이 예상되는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사업(2공구) 공사까지 격돌이 불가피해 질긴 ‘인연’ 을 이어갈 전망이다.

정부가 터키공사 발주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여 수준높은 시공을 확보하는 한편, 불법 로비를 막자는 취지에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터키 평가위원 사전 공개 등 개선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격경쟁(30%)보다 우선 순위에서 설계능력평가(70%)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전남도는 23일 설계 평가 점수를 조달청에 통보, 가격 점수를 합산하는 과정을 거쳐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가장 존경받는 기업’ 삼성·포스코

삼성전자와 포스코 등이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타이어업종에서 1위를 차지했던 금호타이어는 위크아웃 등의 영향으로 한국타이어에 그 자리를 내줬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산업계 간부 4천800명과 증권사 애널리스트 230명, 소비자 4천560명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

는 기업’을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가 종합 1위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 조사가 시작된 2004년 이후 7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포스코가 지난해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 현대자동차, 유한킴벌리, LG전자, 유한양행, 안철수연구소, SK텔레콤, 현대중공업, LG화학이 3~10위에 올랐다. /박정욱기자 jwpark@연합뉴스

‘빚더미’ 민간기업

작년 1,500조 ... 금리 상승편 큰 타격

민간기업의 부채가 1천500조를 넘어섰다.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고 정부의 보조조치도 점차 해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의 기준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적지않은 기업들이 이자 부담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한국은행 자금순환통계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부채는 지난해 9월 말 현재 1천506조4천814억원으로 1년전인 전년 같은 시기의 1천426조7

천63억원보다 5.6% 늘었다.

지난해 9월말 기준 민간기업 부채는 직전 1년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46배로 전년 같은 시기의 1.39배보다 상승했다.

부채 내용별로 보면, 채권발행 잔액이 작년 9월말 현재 262조5천667억원으로 전년 같은 시기의 227조6천984억원보다 15.4% 증가했다. 이 증가율은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높다. /연합뉴스

기아 중형세단 ‘TF’



4월 뉴욕모터쇼 공개

기아자동차는 로체 후속 모델로 오는 5월 출시 예정인 중형세단 ‘TF(프로젝트명·사진)’의 렌더링(그래픽제작과정) 이미지를 22일 공개했다. TF의 디자인 콘셉트는 ‘역진적인 스타일의 미래지향 다이내믹 세단’이다.

해 젊고 역동적인 기아차 디자인의 정체성을 담고, 절제되고 강인한 카리스마가 돋보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는 오는 4월 ‘2010 뉴욕모터쇼’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되고, 국내에서는 5월 출시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STX ‘대우건설 인수 포기’

STX그룹이 대우건설 인수에 참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STX그룹은 22일 조희공시 답변을 통해 “대우건설 인수 여부를 검토한 바 있으나, 인수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룹 관계자는 “대우건설을 인수하는 것보다 기존 사업 역량 강화를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낫겠다”고 배경을 전했다. /연합뉴스

Financial data box showing Kospi index (1,627.10), Kosdaq index (512.25), interest rate (4.20%), and exchange rate (1,147.00 won).



광주교육청도 금호타이어 사주기 동참

22일 ‘범도인 금호타이어 구매’ 행사가 열린 광주시교육청에서 금호타이어 직원들이 타이어를 교체해주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금호 콘셉트 타이어 ‘제조·디자인 혁신상’

금호타이어가 최근 독일 필름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타이어 전시회인 ‘타이어 테크놀로지 엑스 2010’에서 레이저 에칭 기술을 활용한 콘셉트 타이어로 ‘올해의 타이어 제조 및 디자인 혁신상’을 수상했다.

금호타이어의 콘셉트 타이어는 전자 에너지로 빛을 만들어 가공하는 레이저 에칭 기술과 업계에서 처음 시도된 기업 로고 형상화 패턴으로 지난해 9월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호평을 받았다.

심사위원단은 “그동안 많은 회사가 레이저를 통한 새로운 기술을 시도했지만, 금호타이어 방식이 사실상의 첫 번째 성공작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삼일부동산' featuring '상가 임대' and '상가 매매' options with detailed descriptions and contact info.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수원지구 롯데마트앞 벨리스타워빌딩' with floor plans, ameniti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코리아랜드공인중개사'.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에셋코리아' list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and auction, including contact details and a list of agents.